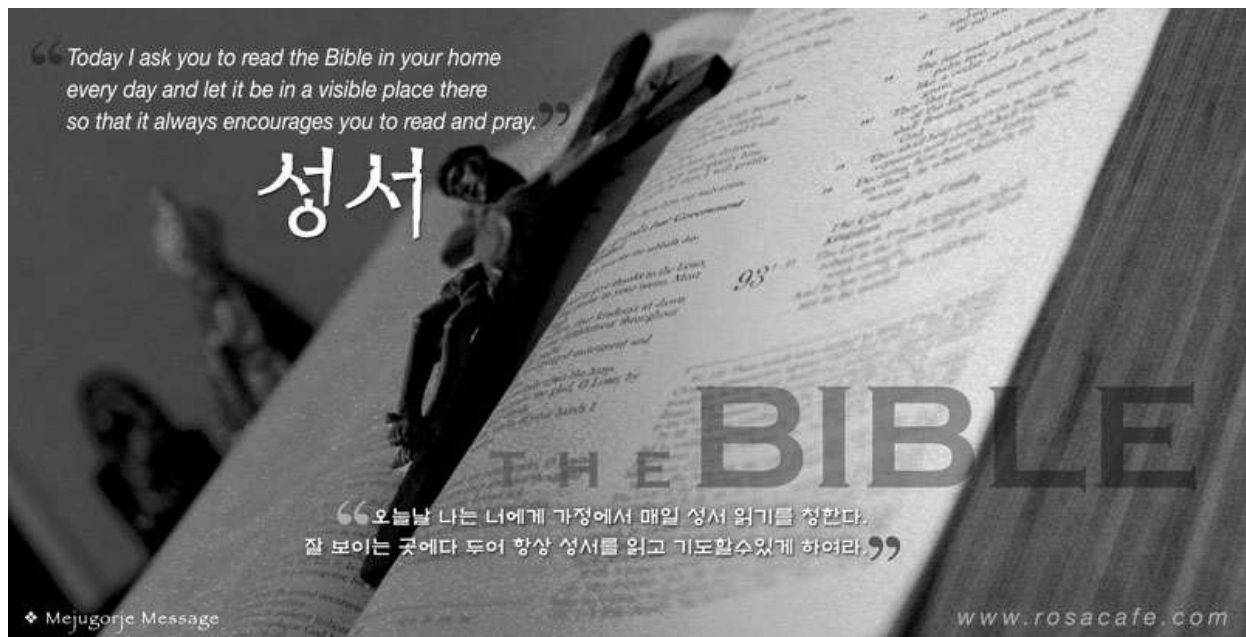


만남

2014 7
통권 186호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최 종 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주임신부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신부님 칼럼	"주님의 성체를 가까이 하십시오"-----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재물과 그 위험(코헬렛 5,9-15)-----	5
주임신부님 교리	교리 68~70 -----	8
가정 교회	부모의 기도 I -----	11
찬 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12
우리들의 이야기	본당의 날을 지내며 -----	13
공동체 소식	-----	14
활동모임시간 및 연락처	-----	17
이달의 전례 및 행사	-----	18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19
미사안내	-----	20

《교황님의 기도 지향》

❖ 일반 지향 : 스포츠

스포츠가 언제나 인류의 우애와 성장의 기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 선교 지향 : 평신도 선교사

가난한 나라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평신도들의 활동을 성령께서 뒷받침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2014년 7월 칼럼글

"주님의 성체를 가까이 하십시오"

부활시기를 마치며 교회는 전례력으로 연이은 대축일로서 우리 믿는 이들을 참된 삶으로 인도해줍니다. 승천 후에 오는 “성령강림 대축일”, “삼위일체 대축일”, 그리고 “성체성혈 대축일.”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일치의 지향, 거룩한 친교를 지니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 그 가운데 하느님과 하나를 이루기 위한 성체로의 초대...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고백하면서 성체를 모시는 거룩한 시간을 많이 갖지 않습니다. 또한 성체를 모시는 데에 성실한 준비가 부재(不在)되어 있습니다. 성인들의 성체에 대한 권고를 통해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강해질 것입니다. 성체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영광을 거울처럼 들여다보도록 깨끗한 양심을 밝혀줄 것입니다. (성 예루살렘의 치릴로)

● 성체를 합당하게 받아 모신다면 여러분 안에 생명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몸을 먹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이 그분 안에서 생명을 간직한다면 역시 그분과 한 몸이 됩니다. 이 성사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주어서 그분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 그리스도는 두 가지 방식, 즉 피(음료)와 살(음식)로 우리에게 온전하고 완전하게 존재하십니다. 그분을 받아 모시는 사람은 그분 곁에 머무르며, 그분을 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게 완전하게 가집니다, 한번 받아 모시든 수천 번 받아 모시든 간에 항상 매 한가지로 오시며, 언제나 그분은 그대로 계십니다. (성 아퀴노의 토마스)

● 영성체는 내적, 외적 두 가지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모두 거룩한 성실과 헌신적인 갈망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열렬한 갈망은 영성체를 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영혼이 은총생활을 누리기 위해 먹는 거룩한 음식처럼, 언제 어디에서나 지녀야 합니다. (성녀 시에나의 가타리나)

● 영성체 후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의 스승께서 우리를 가르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발에 감사의 표시로 입 맞추고, 우리에게서 떠나시지 않도록 간청해야 합니다. (성녀 아빌라의 데레사)

● 세속적인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 왜 그토록 자주 영성체를 하느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하느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불완전함을 정화하고, 곤궁에서 벗어나고, 근심에서 위안을 찾고, 나약함에서 원조를 얻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십시오. 영성체를 자주하는 사람은 악에 더럽혀질 수 없을 정도로 생명과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이 생명을 주는 살을 먹으면 죽음을 가져오는 성향을 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 내가 방황하지 않을 때는 영성체를 한 후뿐입니다. 그때 내 주님께서 당신이 가장 힘 있고 완전하며 완성된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보라, 여기에 인간을 사랑했고 소중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자신을 내어 주고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태운 가슴이 있다. (성녀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

● 영성체 없이는 현세에서 참된 행복도 없고, 삶은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영성체로 기쁨과 행복을 얻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사랑의 성사에서 우리에게 당신을 주시려고 했고 당신만이 채울 수 있는 크고 넓은 가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 재물과 그 위험(코헬렛 5,9-15)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성가 61번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1절을 부릅시다.

◆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주님,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시어 당신 사랑을 알게 하소서.

◆ 삶의 이야기 (진행자)



◆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코헬렛 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큰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수확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이 또한 허무이다. 재산이 많으면 그것을 먹어 치우는 자들도 많다.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밖에 그 주인에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적게 먹든 많이 먹든 노동자의 잠은 달콤하다. 그러나 부자의 배부름은 잠을 못 이루게 한다. 고통스러운 불행이 있으니 나는 태양 아래에서 보았다, 부자가 간직하던 재산이 그의 불행이 되는 것을. 좋지 못한 사업으로 그 재산이 없어지면 부자가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어머니 배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알몸으로 되돌아간다. 제 노고의 대가로 손에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전혀 지니지 못한 채. 이 또한 고통스런 불행이다. 그가 온 것처럼 그는 그렇게 되돌아간다. 그러니 그가 애쓴 보람이 무엇이랴? 바람일 뿐!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마지막으로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없을 때는
재물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지 나누어 봅시다.

◆ 한 걸음 더 나아가기

돈은 우리에게 참으로 편리한 재화입니다. 직접 벼농사를 짓지 않아도 돈이 있으면 쌀을 사다가 밥을 지어 먹을 수 있습니다. 직접 옷을 만들지 않아도 돈이 있으면 내 몸을 보호해줄 옷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집을 짓는 기술을 다 익혀서 건축을 하지 않아도 돈이 있으면 머물 집을 마

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유익한 재화이지만 경계해야 할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돈이 나의 욕심만을 채우려 할 때, 돈은 위험한 유혹이 됩니다. 더 맛있는 음식, 더 멋진 옷, 더 값나가는 집을 쫓아 맹목적으로 돈에 굶주리는 아귀로 변해가게 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다는 것만으로 낙담하고 절망하고 스스로 희망을 접어버리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돈의 있고 없음에 그보다 더 값진 영혼을 빼앗겨 버릴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재물의 위험을 피해가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한데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산 시문집 18권에서 다산 정약용이 두 아들에게 주는 교훈 중에 ‘장화비밀(藏貨秘密)은 막여시사(莫如施舍)’라는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돈을 지키는 비밀이 있으니 자신이 가진 것을 남에게 베푸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위대한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지혜가 녹아 있는 글귀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티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서간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이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시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는 유혹과 올가미와 어리석고 해로운 갖가지 욕망에 떨어집니다. 사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믿음에서 멀어져 방황하고 많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티모 6, 7-10)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모으기만 하는 어리석음은 자신을 파괴시키지만 베풀고 나누는 지혜는 이웃과 자신을 구원하는 웃음을 선물 합니다.

◆ 사제와의 통교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자유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61번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2절을 부릅시다.

교리68

성경 길잡이 (37)

토빗기

다수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토빗기는 기원전 2세기에 물밀 듯 밀려드는 그리스의 관습에 순응해도 되는지 어떤지에 대한 문제로 갈등하는 유다인을 위해 쓰였습니다. 이 책은 아시리아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신실한 유대인 토빗에 관한 흥미 넘치는 이야기입니다. 토빗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느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합니다. 온갖 시련에 기치고 눈까지 멀게 된 그는 하느님께 죽음을 간청한 뒤에 자기 아들 토비야를 메디아로 보내어 맡겨 둔 큰돈을 받아오게 합니다. 한편 메디아에서는 젊은 여인 사라가 죽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일곱 번 혼인하였는데 매번 마귀가 첫날밤에 남편을 죽여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토비야의 여행길에 라파엘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라파엘 천사는 토비야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고 토비야와 사라의 결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며 많은 돈을 손에 넣게 해 주고 토빗의 시력을 되찾아 줍니다.

이 이야기는 훌륭한 유대인은 율법과 조상의 전통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토빗은 하느님을 경외하는德行, 헌신적인 성전 예배, 가족사랑, 자비, 기도, 자선, 단식의 본보기 역할을 합니다. 토비야와 사라를 통해 믿음과 효심과 부부애가 연출됩니다. 토빗과 라파엘 천사가 제시하는 가르침은 사실상 이 책을 읽는 사람 모두를 위한 것으로서 이런 이야기의 설정을 통해 특별한 매력과 흥미를 유발시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과 그들의 대화를 본보기로 삼은 이상적인 아름다운 내용은 오늘날 우리 삶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교리69

성경 길잡이 (38)

유딧기

다채로운 이 이야기에서, 아시리아의 임금으로 등장한 네부카드네자르는 그의 장수 홀로페르네스를 보내 유다를 공격할 13만 2천 군사를 지휘하게 합니다. 하느님의 백성에 대해 적대적인 모든 세력을 상징하는 이들 적의 군사들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다고 하는 상상의 도시 배틀리아에서 유대인

들을 포위합니다. 유다인의 처지에서 모든 상황이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유딧(유다인의 여자라는 뜻을 지닌 이름)이 적진으로 들어가 미모로 홀로페르네스를 현혹시킵니다. 그녀는 그의 천막에서 가진 사사로운 연회에서 그를 취하게 하고 목을 베어 버립니다. 그의 군대는 목이 없는 지위관의 몸뚱이를 보자 공포에 질려 버립니다. 군인들은 도망을 갔지만 유다인의 추격을 받아 대량으로 학살당하고 맙니다.

이 이야기는 셀레우코스 왕조의 박해를 받고 있던 유다인에게 희망을 주고자 마카베오 시대 때 혹은 그 이전에 쓰인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믿음에 충실한 이들이 당신 권능에 의탁하고 율법을 준수한다면 최악의 상황에서 하느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환경이 다른 처지에서 이 책을 읽는 우리도 하느님을 믿게 되면 그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리70

성경 길잡이 (39)

에스테르기

여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제목을 붙이 이 책은 유다 백성에게 오랜 시기를 견디고 살아남은 것을 경축할 기회를 주고자 만들어진 멜로드라마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기원전 4세기 이후에 저작 활동을 하는 무명의 유다인 저자는 푸림절의 배경(아람어로 ‘푸림’이라 불린다. 이는 ‘주사위’를 의미하는 ‘푸르’에서 유래되었으며, 아람어 ‘푸르’는 아카드어 ‘푸루’에서 비롯되었다. 푸림절의 근거는 에스델서 9장 17~32절이다. “아달 월 14일과 15일을 축일로 지키라고 지시했다. 이 달은 쓰라림이 기쁨으로 바뀌고 초상날이 축제일로 바뀐 달이요, 이 날은 유대인들이 원수에게서 풀려 난 날이라, 이날을 기쁜 잔치날로 지내며 선물을 주고받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뻗는 날로 삼으라고 하였다.” 라고 쓰여 있다.)을 설명하고자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설화는 시대를 페르시아의 임금 아하수제로(크세르크세스 1세 기원전 485-464년) 때로 설정합니다. 아하수제로는 와스티 왕비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미모의 유다인 여자 에스테르를 왕비의 자리에 앉힙니다. 에스테르의 삼촌인 독실한 유다인 모르도카이가 아하수에로의 사악한 고위 관리 하만을 노하게 합니다. 하만은 모르도카이와 왕국 내의 모든 유다인을 단 하루에 몰살할 음모를 꾸밉니다. 그 음모는 에스테르가 그녀의 백성을 위해 개입함으로써 좌절됩니다. 그리하여 하만 자신이 모르도카이를 위해 준비한 바로 그 교수대에 매달리게 되고 모르도카이는 하만이 있던 자리로 승진합니다. 유다인은 그들의 적 7만5천을 죽일 수 있는 허락을 받습니다.

무시무시하게 들리겠지만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를 통해 전해 내려오면서 많은 사람이 봄철에 모르도카이에 대한 갈채와 하만에 대한 조소로 에스테르 이야기를 극화하고 흥청망청 즐기는 푸림절 파티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유다인은 에스테르 이야기와 푸림절로 자신들이 살아남은 사실과 하느님께서 섭리로 돌보아 주심을 경축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에스테르기를 읽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되새기고 그 이야기가 악마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십자가 처형대에 악을 정복하시어 사탄에 대한 형세를 역전시킨 그리스도를 기리며 기뻐하고 사탄과 동맹을 맺은 악마를 몰락시켜 죄와 죽음의 세력에 대해 승리하신 그리스도께 찬미와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저자가 이러한 해석을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누려고 덧붙일 수 있는 해석입니다.

비안네 신부

부모의 기도 I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 아버지,
 당신은 부족한 저희에게 은총을 내리시어
 이 가정을
 화목하고 거룩하게 이끌어 나갈 사명을 주셨나이다.
 그동안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당신의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청하오니,
 나자렛 성가정을 본받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저희 부부가 당신 안에 서로 하나 되어
 당신이 주신 복된 선물인 자녀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소서.
 또한 우리 가족들 뿐 아니라 당신이 주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알고
 양보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세상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도구되게 하소서.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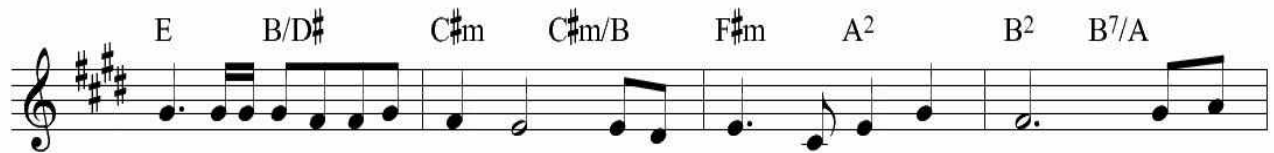
375

주를 향한 나의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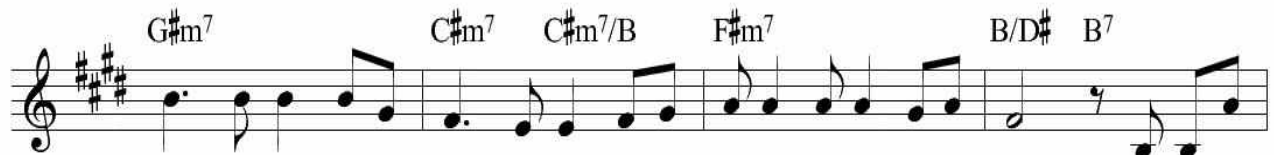
Geoff Bullock



1. 주를향 한 나의 사 랑 을 주 께 고 백하게 하소 서 아 름 다
2. 부드러 운 주의 속 삭 임 나의 이 름을부 르시 네 주의 능
3. 온맘으 로 주를 바 라 며 나의 사 랑고백 하리 라 나 를 향



운 주의그 늘아 래 살 며 주 를 보 게 하 소 서 주 님
력 주의영 광을보 이 사 성 령 을 부 으 소 서 메 마
한 주님의 그크신 사 랑 간 절 히 알 기 원 해 주 의



의 말 씀 선 포 될 때 에 땅 과 하늘 진 동 하 리 니 나의 사
른 곳 거 록해 지 도 록 내가 주 를 찾 게 하소 서 내 모 든
은 혜 로 용 서 하 시 고 나를 자 녀 삼 아 주셨 네 나의 사



랑 고 백 하 리 라 나의 구 주 나의 친 구
것 주 께 드 리 리
랑 고 백 하 리 라

본당의 날을 지내며...

오스나부르크 공동체 이제명(비오)

우리 본당의 모든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날씨도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굉장히 더웠지만 우리의 아버지께서 비로써 그 더위를 없애주셨고, 그 비로 우리는 더욱 가까이 붙어있을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축복받은 날이 아니었나, 오스나부르크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준비를 해주신 함부르크 분들과 멀리서 와서 함께 가족의 모임을 해주신 브레멘, 하노버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라는 말보다 ‘만나게 되서 너무 좋았습니다’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신부님과 본당 모든 어르신들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하노버 공동체 이범이(바오로)

2014년 6월8일 일요일 성령강림 대축일 본당의 날 행사를 함부르크에서 유명한 프란테 브로멘이라는 공원에서 함부르크 본당, 하노버, 브레멘, 오스나부르크 공동체 에서 약280여명이 함께 모여 성령강림 대축일 미사를 마치고 독일에서도 유명한 새끼돼지 바비큐 세 마리를 주문하여 참으로 은혜로이 베풀어 주신 귀한 성찬으로 하느님의 힘이 우리들에게 내려 오신 날을 기억하는 본당의 날 행사를 통하여 하나 되고자 노력하시는 신부님의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당의 날 행사에 많은 다양한 게임을 준비하시고 또한 많은 선물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한말조 마리안나 회장님이하 회장단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부님께서 정성들여 준비하신 게임은 너무나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갑작스러운 우천으로 인하여 계획하신 게임을 다하지 못하여 아쉬웠습니다.

성령강림 대축일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힘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성령의 힘을 주시어 순종과 겸손으로 하느님이 부르심에 언제 어디서나 응답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귀한 만찬의 식사를 마치고 신부님께서 게임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부르면, 물론 나이 많은 노인들은 게임에 참가하기가 힘들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신속히 나와 게임에 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신부님께서 목소리를 높여도 참여가 저조해 아쉬웠습니다.

특히, 오늘 본당의 날 행사는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총을 선물로 주심을 소중히 생각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삶을 사랑하고 슬기롭게 따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 합니다.

2014년도 본당의 날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7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일	토 마 스 (St. Thomas)	강 신 행 이 정 수 홍 중 각 박 귀 동	25일	크리스토퍼 (St. Christopher)	김 영 기 Rabe
10일 11일 12일	베로니카 (St. Veronica)	김 매 자 육 중 인 박 성 아	26일	안 나 (St. Anna)	김 순 임 심 은 희 최 경 숙 이 정 은
21일	다 니 엘 (St. Daniel)	심 동 근 김 무 송 김 선 일		아 나 벨 (St. Annabel)	한 선 지 정 정 숙
22일	막달레나 (St. Magdalena)	김 원 자	28일	빅 토 르 (St. Viktor I)	허 두 욱
24일	크리스티나 (St. Christina)	이 정 욱 문 귀 욱	29일	마 르 타 (St. Martha)	김 정 숙

❖ 7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일	토 마 스 (St. Thomas)	탁준성(H)	25일	발렌티나	임선희(O)
11일	분 도	문동철(H)	26일	안 나 (St. Anna)	노경아(H) 강지우(H) 곽유정(H) 정애령(H) 탁화자(H)

❖ 세상을 떠난 교우를 생각합니다. ❖

☙세월호의 희생자		(주님, 세상을 떠난 모든 이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7월25일	☙김차연 마리아	

❖ 우리들의 정성 ❖

주 일	6월 1일	6월 8일	6월 15일	6월 22일
계(€)	247.27	580.55 2차 218.20	192.45	214.02

❖ 공 동 체 소 식 ❖

❖ 7월 성가번호

7월	입 당	봉 헌	마 침
6일			
13일	41	216	31
20일	439	219	21
27일	24	217	34

❖ 7월 미사 전례 봉사자 ❖

7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카페 봉사
6일	최화영(시몬) 최종금(로사)	최장용(레오) 문경영(아가다)	김진호(프란치스코) 이현묵(요셉)	2구역
13일	이수웅(필립보) 김순임(안나)	김애란(세실리아) 이명자(가밀라)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최장용(레오)	3구역
20일	박귀동(토마) 김민수(아우구스티노)	김잔디(아그네스) 윤예진(모니카)	곽케빈(요셉) 박주영(비비안나)	4구역
27일	백정선(토마스) 이영자(헬레나)	강신행(토마스) 강순행(말가리다)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곽케빈(요셉)	청년회

❖ 자진헌납금 ❖

6월1일 - 6월22일 자진헌납금 납부자 명단 :

강신행, 권지연, 김부남, 김형웅, 박귀동, 서세원, 손대조, 손수희, 우동천, 육종인, 이경구, 이공종, 이기열, 이수웅, 이영희, 이종화, 임정희, 진윤희, 최장용, 한말조, 현영애, 민경화.

구좌입금 : 강일남, 곽케빈, 김대현, 김정숙, 김진호, 김치수, 남궁춘배, 백정선, 김동수 오옥수, 윤용기, 이영원, 최성자, 최형식, 최화영, 허길조, 허두욱, 허채열, 홍경영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회장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우리가 해야 할 일들

1. 7월에 야회행사가 잡혀있습니다. 아래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연령회	요셉 마리아회	꾸리아
7월9일(수) 오전미사 후	7월20일(주일) 미사 후	7월 28일(월) 시간 추후 통보

2. 7월은 주일학교 방학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참조해 주십시오.
3. 7월 26일은 청년부 MT입니다. 청년부 회장님을 통해서 함부르크 공동체와 지방공동체에 알림을 드립니다.
4. 7월 13일(주일)부터 배구대회 준비, 배구연습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십니다. 주일의 정신을 잘 지키시고, 영육 간에 건강하게 다녀오시길 기도합니다.

❖ Bremen 공동체 소식

1. 조 영실 (마리셰실 세실리아) 자매님의 배우자이신 유르겐 딕 형제님이 선종 하였습니다. 6월 16일에 신부님과 브레멘 공동체 그리고 함부르크 공동체 형제, 자매님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 브레멘 공동체에 강은지 (루치아) 자매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 7월 소공동체 모임은 19일 (토) 14시에 서선영 (아우구스티누스) 회장님 댁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하노버 공동체에서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00시에 소공동체 기도 모임을 안토니오 성당에서 갖습니다.
2. 요한과 도미니카의 졸업연주가 24일(화), 25일(수)에 각각 있습니다.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1. 8일 함부르크 본당의 날에 참석하였습니다. 준비해주신 손길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2. 14일(토) 19:00에 6월 기도회가 김형철 마리오, 이진아 비비안나 가정에서 있었습니다.

사 목 협 의 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 장	한 말 조 마리안나	040/ 5069 7342 0157 7021 0466
구 역 장 모 임		매월 넷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구 역 분과장	회장단	
주 일 학 교		매주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교 사	이 선 주 로 사	0176 7636 2699
연 령 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00분	만남성당	회 장	김 진 호 프란치스코	040/ 3742 0006
레 지 오 마 리 애	믿음의 샘 Cu.	매월 첫째 목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강 순 행 말가리다	040/ 297 543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 장	이 순 자 마 리 아	040/ 732 1104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김 영 희 클라우디아	040/ 532 4138 0177 724 6335
	사랑의 모후 Pr. (청년반)	매주 화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박 성 아 베로니카	0176 8011 2329
구 역		1구역	구역장	최 화 영 시 문		8903264
			총 무	김 정 숙 마르타		8322587
		2구역	구역장	허 채 열 크리스티안		5709734
			총 무	김 수 희 모니카		04106-72958
		3구역	구역장	김 형 웅 야고보		6310912
			총 무	김 정 자 잼 마		6310912
		4구역	구역장	정 명 옥 살로메		6448623
			총 무	이 순 자 마리아		41091742

❖ 2014년 7월 ❖

일	요일	전례일	기관·단체 행사	비고
1	화			
2	수			
3	목	성 토마스 사도 축일	꾸리아	
4	금		1구역 소공동체	
5	토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브레멘
6	일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경축 이동	사목협의회	사제 은퇴미사 11:00 함성당
7	월	연중 제14주간 월요일 소서		
8	화			
9	수		연령회 야외행사	오전 미사 후
10	목		요셉 마리아회 소공동체	저녁 미사 후
11	금	성 베네딕토 아빠스 기념일	2구역 소공동체	주일학교 방학
12	토			오스나브뤼크
13	일	연중 제15주일	청년부 소공동체	
14	월			
15	화	성 보나벤투라 주교 학자 기념일		
16	수			
17	목	제헌절		
18	금	초복	3구역 소공동체	
19	토			하노버
20	일	연중 제16주일(농민 주일)	요셉 마리아회 야외행사	
21	월			
22	화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기념일		
23	수	대서		
24	목		연령회	
25	금	성 야고보 사도 축일	4구역 소공동체	
26	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부모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 기념일	청년부 MT	
27	일	연중 제17주일		
28	월	중복	꾸리아 야외행사	
29	화	성녀 마르타 기념일		
30	수			
31	목	성 이냐시오 데 로올라 사제 기념일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최 종 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목회장 한 말 조 마리아나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040 24 34 92
Fax.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hhmamm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 보 만 남 ❖

발 행 인	최 종 태 요한마리아비안네 본당신부님	viannae@hanmail.net H.P : 0176 8464 7981
편 집 인	남궁춘배 바로톨로메오	cbnamgoong@hanmail.net H.P : 0176 3900 7430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내용은 함께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전, 미사 10분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시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금요일 각 소공동체 17시 30분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회장 : 서선영(아우구스티노), Tel : 0421 255162

Osnabrück

시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sse 6, 49074 Osnabrück

회장 : 최한우(바오로), Tel : 0541 37027

H.P : 0157 5436 0230

Hannover

시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5시 30분

장소 : Kirchröder Strasse 12a, 30625 Hannover

회장 : 이범이(바오로), Tel : 0511 748945